

일본: 취약계층여성들의 '함께 일하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경남여성,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를 꿈꾸다!』

슈퍼바이저	김지미(경남대학교)
팀장	이선희(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팀원	하민경(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박정민(해바라기쉼자리)
	석혜진(마산장애인복지관)

■ Contents ■

Ⅰ. 연수개요

Ⅱ. 연수목적 및 목표

1. 연수목적

2. 연수목표

Ⅲ. 연수일정

Ⅳ.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의 특성

1. 연수지역의 특성

2. 방문기관의 특성

Ⅴ. 연수주제에 대한 국가간 비교분석

1. 이론 및 학문적 배경

2. 국가 간 비교분석

Ⅵ. 결론 및 제언

Ⅶ. 연수소감

Ⅰ. 연수개요

연수유형 및 주제	(공모형) 일본 **취약계층여성들의 '함께 일하는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경남여성,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를 꿈꾸다!』**		
연수기간	2012. 09. 18.~ 2012. 09. 22. (4박5일)		
수퍼바이저 및 팀원	직책(연수팀)	이름	소속
	슈퍼바이저	김지미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팀장	이선희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팀원	하민경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박정민	해바라기 쉼자리
		석혜진	마산장애인복지관

Ⅱ. 연수목적 및 목표

1. 연수목적

취약계층의 여성들은 자립·자활에 대한 높은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해외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는 일본사호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를 이해하고, 경남지역에 생활협동조합을 형성하여 취약계층 여성들의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형성하여 일자리 창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2. 연수목표

1) 일본해외연수를 통해서 실무자들의 '워커즈 콜렉티브' 이해 도모

2) 선진지 연수이후 취약계층여성들의 "함께 일하는 공동체" 모색을 논의

3) 취약계층여성기관 네트워크 체계를 형성하여 일자리 창출 시너지를 높임

Ⅲ. 연수일정

날짜	방문기관	세부 일정
9/19	요코하마 아동 양호시설 『성모애아원』	● 기관 사업 설명, 라운딩 ● 프로그램 진행 모습 참관
	NPO법인 코스모스 카페	● NPO법인 운영설명회 및 워커즈 콜렉티브 사업장 이해 도모
	동경 워커즈 콜렉티브 협동조합 사무국	● 동경 워커즈 콜렉티브 협동조합 사무국 운영 현황 이해 ● 토론 및 세미나 진행
9/20	가나가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센터	●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 설명회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내용 토론
9/21	요코하마시 코호코구 장애인지역활동홈	● 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설명회 ● 기관라운딩 ● 장애인자립지원센터 기관방문
	와쿠와쿠 프라자 (오토토 소학교)	● 기관 오리엔테이션 및 사업설명회 ● 프로그램 진행 모습 참관

Ⅳ. 연수지역 및 방문기관의 특성

1. 연수지역의 특성

1) 동경



- 위치: 일본 남동부 도쿄만
- 경위도: 동경 139°41′30″, 북위 35°41′23″
- 면적: 2187.05
- 행정구분: 23특별구26시5정8촌
- 행정관청소재지: 東京都新宿區西新宿2-8-1
- 홈페이지: http://www.metro.tokyo.jp/
- 꽃: 왕벚나무(ソメイヨシノ)
- 나무: 은행나무(イチョウ)
- 새: 붉은부리갈매기(ユリカモメ)

도쿄는 황궁(皇宮)을 중심으로 한 23개 구(區)의 구부(區部), 그 서쪽의 3다마지구[三多摩地區] 및 이즈제도[伊豆諸島]·오가사와라제도[小笠原諸島]를 포함하는 3개 지역으로 대별된다. 이 3개 지역을 합쳐 도쿄도[東京都]라고 하며, 행정상 23특별구·26시(市)·5정(町)·8촌(村)으로 나뉜다. 도청소재지는 신주쿠구[新宿區]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할 때에는 23구의 구부를 말한다. 인구밀도는 1㎢당 5,293명으로 최저인 홋카이도[北海道](73명)의 70배를 넘고 있다

지형은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간토산지[關東山地], 다마구릉[多摩丘陵]·사야마구릉[狹山丘陵], 무사시노대지[武藏野臺地]·아라카와강[荒川]·에도강[江戶川]의 충적지 순으로 계단 모양으로 낮아져서 도쿄만[東京灣]에 임한다. 간토산지는 도의 서쪽 경계에 있는 구모토리산[雲取山:2,018m]을 최고봉으로 하여 1,500m 이상의 산봉이 이어지는 장년기 산지로, 산지를 깊이 침식하는 다마강[多摩川]과 그 지류 아키카와강[秋川]이 뛰어난 계곡미를 형성한다.

산록에는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여러 작은 구릉과 다마구릉이 이어지고, 대지를 사이에 끼고 사야마구릉이 가로놓여 있다. 무사시노대지는 오메시[靑梅市] 부근을 정점으로 하여 남동방향으로 경사하는 평탄한 홍적대지(洪積臺地)로 해발고도 20～190m이다. 대지는 간토롬[關東loam]으로 불리는 화산회토(火山灰土)로 덮여 있으며, 중앙 부근에 샤쿠지이[石神井]·젠푸쿠지[善福寺]·이노카시라[井之頭] 등의 용천(湧泉)이 있으나 기타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지하수가 깊다. 대지의 동단부는 높이 약 20m의 벼랑에 의해 충적저지와 경계하는데, 그 말단부의 대지는 용천에서 흘러내리는 많은 하천의 침식곡에 의해 분리되어 혼고대[本鄕臺]·도시마대[豊島臺]·요도바시대[淀橋臺]·메구로대[目黑臺] 등 작은 대지군을 이룬다. 동부의 대지상에 형성된 시가지를 '야마노테[山手]'라고 하여, 저지부의 시가지 '시타마치[下町]'와 대조적으로 부르고 있다.

저지는 아라카와강·에도강 하류의 삼각주와 매축지(埋築地), 다마강 하류의 삼각주와 매축지 등으로 나뉘는데, 대부분 해발고도 5m 이하의 저평한 땅이고, 특히 스미다강[隅田川:아라카와강의 하류] 동쪽의 고토[江東] 지역에는 '제로미터 지대'라고 불리는 해면(海面) 이하의 땅도 있다. 이즈·오가사와라의 두 제도는 도쿄도에 속하는 태평양상의 화산도이다. 이즈제도는 활화산인 미하라산[三原山]이 솟아 있는 오시마섬[大島] 등 이즈7도[伊豆七島]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로 후지하코네이즈[富士箱根伊豆] 국립공원에 속해 있다.

오가사와라제도는 북위 27°부근에 있는 30여 개의 섬으로 된 제도로, 그 전역이 물새 번식지로서 대부분의 물새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기후는 여름에 고온다우하고 겨울에 비교적 한랭건조한 기후를 보인다. 1월 평균기온 4.1℃, 8월 평균기온 27.1℃, 연평균기온 15.6℃이고, 연강수량 1,405mm이다. 도심부는 교외보다 기온이 높아 겨울에는 2~3℃ 정도 고온인 때가 있다. 이즈제도는 온난다우한 해양성기후로 하치조섬[八丈島]에서 연평균기온 18.1℃, 연강수량은 3,284mm이다.

［출처］동경 / 네이버 백과사전

2)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 위치 : 일본 혼슈[本州] 가나가와현[神奈川縣]
- 경위도 : 동경 139°38′14″, 북위 35°26′38″
- 면적: 437.38
- 행정관청소재지:神奈川縣横浜市中區港町1丁目1番地
- 홈페이지 http://www.city.yokohama.jp/
- 꽃 : 장미(バラ)
- 나무 : 은행나무(イチョウ),느티나무(ケヤキ),애기동백(サザンカ),산가막살나무(サンゴジュ),모밀잣밤나무(シイ),동백(ツバキ)

본래 다마 구릉[多摩丘陵] 임해부(臨海部)의 사주(砂洲)상에 자리한 한촌이었다, 1859년의 미·일(美日) 수호통상조약에 따라 개항장(開港場)이 되면서 도시화의 기초가 성립되고, 1872년 도쿄[東京]와의 사이에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일본의 문호로서의 지위가 확립된 일본 최대의 항만이 있다. 한편, 1910년대 초와 1955년, 1959년 3차례에 걸쳐 실시된 연안수역의 매립공사(埋立工事)로 광대한 공장부지가 조성되자, 종래의 무역도시로서의 기능 외에 공업도시적인 성격이 강해졌다. 시역(市域)은 다마 구릉의 남동부를 차지한다. 다마 구릉은 개석(開析)이 진척되어 쓰루미강[鶴見川]·가타비라강[帷子川]·오오카강[大岡川] 등과 그 지류들이 많은 계곡을 형성하면서 도쿄만으로 흘러든다. 구릉의 동부는 해발고도 40~50m의 대지를 이루고, 그 일부가 혼모쿠곶[本牧岬]이 되어 도쿄만으로 돌출한다. 혼모쿠곶과 오오카강 하구

사이의 천해(淺海)가 매축되어 현재의 요코하마의 중심부가 형성되고, 가타비라강의 하구부도 본래 만(灣)이었던 곳이 현재는 육지로 변했다.

최초의 시가지는 개항 후 항구에 접해서 개설된 상관(商館)·외인거류지(外人居留地)였는데, 현재 그 일대에는 현청·시청 등 관공서와 상사·은행 등이 집중되어 비즈니스센터를 형성하고 있다. 상점가는 그 배후의 이세자키정[伊勢佐木町]을 비롯한 모토마치정[元町]·노게정[野毛町] 등지에 분포한다. 공업은 무역과 함께 요코하마의 산업경제의 중심이 되어 임해매축지(臨海埋築地)에 제철·조선·자동차·기계·식품 등의 대단위 공장이 입지하고, 내륙부의 공업지화도 현저하여 호도가야[保土ヶ谷]·도즈카[戸塚]·오후나[大船] 등지에 많은 공장이 있다. 공업제품의 출하액은 수송용 기기·식품·전기기기·화학제품·석유제품의 순이고, 비단 스카프는 생산규모는 적으나 전통공업으로 유명하다. '메리켕 하토바[メリケン波止場:아메리카 부두라는 뜻]'라는 대부두를 비롯하여 신항(新港)부두·야마시타[山下] 부두 등을 중심으로 항만설비가 완비되어 있다.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광학기기·금속제품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비철금속·어개류(魚介類)·승용차 등이다. 도쿄에 인접해 있는 관계로 신칸센[新幹線]을 비롯한 철도와, 고속도로·국도가 통하고 있어서 교통은 매우 편리하며, 시내에는 1972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다. 관광지는 항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야마시타 공원[山下公園]은 임해공원으로 유명하고, '항구가 보이는 언덕 공원'에서의 전망도 좋다. 이 밖에 요코하마 베이브리지, 일본에서 제일 높은 랜드마크 타워(296m) 빌딩 등이 이 도시의 발전상을 대표하고 있다. 이 곳의 차이나 타운은 관광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1923년 관동대지진 때는 시가지와 항만 시설 등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5년 5월에는 미국 공군의 폭격으로 시가지의 42%가 파괴된 적도 있다.

［출처］ 동경 / 네이버 백과사전

2. 방문기관의 특성

◈ 요코하마 아동양호시설 <성모애아원>

기관명	요코하마 아동양호시설 -성모애아원-	방문일자	2012년 9월 19일
담당자명		홈페이지	http://seiboaijien.com
주소 및 연락처	요코하마시 나까구 아마테쵸 68		

1) 일본의 아동양호시설

일본에서는 양호시설이라고 한다. 일본에는 아동양호시설 아동 3만명이 생활하고 있다. 한국은 3500명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동양호시설에 15천명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저출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어나는 아동 숫자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아동 시설 입소정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출생률 감소에 반해, 보호자의 정신질환으로 가정에서 보호가 힘든 아이들이 시설 입소를 선택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학대받고 있는 아동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알수 있다. 아동학대의 종류에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의 학대등이 있다. 한국은 도가니법이 있지만, 일본은 현재 없다. 성적학대에 대해서는 그래프에서 믿기는 어려울 정도로 사실이다. 아동양호시설에서는 장애를 가진 어린아동이 늘어나고 있다. 100인의 아동을 100%이라고 가정하면, 23명의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동양호시설에서는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치중하고 있다. 집단아동시설의 형태는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소규모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하다면 가정의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따. 집단양호시설에서는 그룹홈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아동양호시설의 수양부모위탁(가정위탁) 3500명, 일본에는 아동시설의 3만명, 수양부모위탁 3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일본전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진학률이 50%, 아동양호시설의 출신아동들은 대학진학률이 13%인데, 학력의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성모애아원

성모애아원의 설비는 아동양호 시설과 육아단기지원사업과 부모와 자식 생활 훈련, 아동가정지원센터를 병행하고 있다. 우리들은 그리스트교 정신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 법인본부는 구마모토현에 있고, 본부에는 아동양호 시설과 정서장애아동

단기치료 시설이 있다. 성모애아원의 부지면적 5, 240,98㎡, 건축면적 1,451,51㎡, 연면적 3,769.46㎡, 시설 정비비용 총액 ￥1,368,996,263-이다. 성모애아원에는 현재, 85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4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성모애아원은 1946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당시는 전쟁고아 다수가 유입되었다. 혼혈아동아 많이 있엇다. 미국에 입양가는 아동도 있었다. 아동들의 생활장소는 5LDK인데, 거기에, 6명으로부터 8명이 살고 있다. 왼쪽이 주방이고, 오른쪽에 욕실이다. 아동방에는 왼쪽이 양실타입이고 오른쪽이 일본식타입이다. 아동들의 식사에 대해서는 영양섭취 관리, 식품 재료의 품질관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침식사와 저녁식사는 보육사가 조리하고, 점심은 조리원이 조리한다. 회계에서는 총지출액수의 75%가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따. 아동한명에 대하여 평균으로 ￥309,000-의 경비가 사용되고 있다.
아동의 1개월의 생활비는 사립고교의 아동이 제일(가장) 많다. 아동들은 다양한 체험을 하고 있다. IT(정보기술)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3) 아동가정지원센터

아동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시구 읍면과 제휴하고, 지역복지에 공헌하고 있다. 「어린이에의 학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의 일부이다.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 심리적 학대 4가지가 일본에서 가장 큰 아동학대의 골자라고 보면 된다. 지역의 아동의 복지에 대해서는 가정으로부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대상은, 아동상담소에 더해서, 구복지보건 센터가 파악한 전문적인 지원을 요하는 케이스 등이다.
사업내용은, 지역·가정에서의 상담에 응하는 사업, 아동·상담소에서의 수탁에 의한 지도, 유관기관등과의 제휴, 연락조정, 일시보소의 수탁, 양육가정지원사업, 육아에 관한 강연회의 실시, 가족교류 사업등, 지역계발 활동, 연구·학습· 연수 등에의 참가, 실습생 받아들이는 것이다.
직원배치는 센터장, 고문 2명, 심리요법사 1명이다. 심리요법실, 모형정원요법실, 카운슬링 실을 갖추고 있다.

4) 질의응답 내용 요약

Q : 상류층 지역에 시설에 있어, 주민들의 반대는 없었는가?
A: 시설이 먼저 설립되어 문제가 없었다.

Q : 지역사회주민들이 시설을 어떻게 바라보고 인지하고 있는가?
A: 시설이 먼저 설립되어, 불평이 없고, 바자회를 하면 지역주민이 참여 한다.

Q :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강당과 교육실은 왜 없는가?

A: 단체 활동 강당은 없고, 외부와의 스포츠 활동, 4개방 정도가 모여서 여행을 갔었다. 4개방이 모둠활동을 진행했는데, 소모임이 줄고 있다.

Q : 한국에는 방과 후에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과후 프로그램 없는지, 소규모로 방마다 운영하고 있는지?

A: 대체적인 것은 방과 후 집에서 숙제를 하거나, 자유롭게 노는데, 가끔 일본 공연, 야구참여를 하고 있지만,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Q : 방에 연령이 혼합, 성별혼합인데, 사춘기에 공동생활가능한지?

A: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교육을 사전에 실시한다. 성모애아원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다수였는데, 혼합생활은 2년 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나이 많은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한다. 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쏟고 있는 과정에 있다.

Q : 2년 전부터 시스템을 바꾼 이유는?

A: 일본전체에 아동복지흐름이 큰 시설에서 작은 시설로 시스템 변경이 발생하고 있고, 변화를 가져왔다. 오늘 비가 왔는데, 비가 와서 방안에 세탁물을 말렸는데, 여자아이 속옷, 남자아이 속옷이 있고, 남자여자 아동이 잠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과정이 발생하고 있다. 남자여자 분리하여 성장시키면, 호기심에 분리보다 혼합이 호기심을 덜 발생하게 한다.

Q : 보육사 및 거주공간에서 아동생활에 로테이션이 발생하는지?

A : 일본에 주 40시간 근무가 정해져 있다. 직원은 로테이션 근무를 만들고 있고, 보육사와 아동의 홈체인지는 없고, 직원교대는 발생하고 있다. 한번 입소한 집에서, 계속생활하고 있다.

Q : 아동보육시설 입소 경우, 아동학대의 종류와 발생성향이 반영되고 있는가?

A : 제일처음 입소하거나, 아동상담소에서 의뢰하면, 주임님, 원장님과 상담 후 상태를 보고, 어느 집에 넣을 것인지를 결정한다.

Q : 일본의 양육시설이 잘 된 경우 큰 규모가 없는지? 시설의 크기와 규모의 어느 정도 되는가?

A : 성모애아원은 큰 규모에 속하고, 일본에서는 Top이라고 볼 수 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보육사가 방안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일본에서도 거의 없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Q : 청소년시기에 비행을 일으키지는 않는지? 가출 및 일탈은 없는지?

A : 현재는 청소년들이 비행을 일으키지 않는데, 가끔 발생하고 있다. 2년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2년 동안 거의 없었다.

Q : 보육사들이 아침, 저녁 식사하고, 조리원이 점심하는데, 역할분담의 이유가 있는지?

A : 보육사가 아침, 저녁을 짓고, 점심은 조리원이 짓고 있는데, 제일 큰 이유는 1일 근무체계의 한계가 있고, 점심은 간단히 먹자는 의사가 있고, 요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지만, 점심은 잘 만들어서 먹이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보육사는 남성분도 계시고, 남자보육사도 요리를 잘하고 있다.

Q: 한국의 아동시설에 근무할 경우, 이직률이 높은데, 일본은 어떠한가?

A :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래 근무하고 있다.

Q : 보육사의 특성은?

A : 일반사무원보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결혼해서 그만두거나, 결혼을 해도 근무한다.

Q : 보육사의 근무환경은?

A : 보육사 2인+ 지도원 1인이 추가되는데, 보육사 2명은 8시간 근무하고, 저녁 10시부터 지도원이 근무하고 있다.

Q :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어떻게 되는지? 재원의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지?

A : 일본 대학초봉은 ￥ 195,000 (한화 : 29,250,000)

Q : 한국 아동양육생활시설에서는 이용자의 욕구조사를 하지 않는데,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A :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지 않고, 진로설정 상담을 실시한다. 제3의 평가단이 방문해서, 실제적으로 전체를 보고, 입소자를 인터뷰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Q : 한국에서는 기능보강사업을 국가에서 70%, 지자체에서 30% 지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가?

A : 보조금 75%, 대출금 20%, 자부담 5%로 구성된다. 실제적인 대출은 4억엔이었는데, 2억엔은 요코하마시에서 보조받았고, 2억엔은 여전히 부채로 남아 있다.

Q : 퇴소연령 및 자립이후 생활은?

A : 기본적으로는 18세까지 연령인데, 필요에 의해서 성인이 20세까지 입소할 수 있다. 한국은 만18세까지 입소할 수 있고, 그 후 퇴소하지만, 대학 및 직업훈련에 가면 24세~ 26세까지 시설입소가 가능하다.

	
성모애아원 전경사진	연수참가자 단체사진
	
성모애아원 거주공간 주방	성모애아원 거주공간 입소자 개별공간

◈ NPO법인 코스모스 - 코스모스 카페-

기관명	NPO법인 코스모스 - 코스모스 카페-	방문일자	2012년 9월 19일
담당자명	-	홈페이지	http://cosmos.chu.jp
주소 및 연락처	하치오우지시 가타쿠라마치 440-15		

1) 기관의 특성 및 사업내용

워커즈콜렉티브 매장은 3가지 주요목적이 있다. NPO법인에서 출발했다. 매장운영에 있어서는 동경 워커즈 콜렉티브에서 운영하고 있다.

- 첫째, 안전한 식재료를 제공한다. 사용하는 재료의 70% 정도가 보리 등 유기농 재료이다. 블루베리 쨈이 있는데,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직접 수확하여, 쨈을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다. 매장 밖에 있는데, 자판을 놓고, 무임판매를 하거나, 농산물 내어놓거나, 100엔을 내고 담아가는 것을 영하고 있다. 매장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빵 같은 경우, 천연효모를 사용하고 있다. 20년전부터 이용한 손님은 단골로 아직 남아서 운영하고 있다.

- 둘째, 근무하는 사람은 20세에서 70세까지 광범위하게 근무하고 있다.
  장애를 가진 분도 근무하고 있다. 3년 근무하면 1시간에 200￥~300￥을 받고 있다. 3년 미만이면, 시급 200￥, 3년 이상이면 300￥ 시급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작은 시급을 받고 있지만, 시민사업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원봉사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매상을 올리는 것은 인건비를 받고 싶지만, 일본전체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셋째, 2008년부터 5년 정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목표를 위해 운영하고 있다.
  매장 벽에 걸려있는 콜렉션이 작품이고, 지역민들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콜렉션은 프로분이 만든 것이어서, 판매도 가능하다고 한다. 전시회에서 판매된 2%가 코스모스카페에서 수익사업으로 받고 있다. 여러 방면으로 하고 있지만, 경영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출발시점에서는 회원에서 30,000￥을 내고 있다. 근무하는 사람도 있고, 근무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지원자는 구자를 가지고 1,000￥을 내고 있다. 신뱅크라는 것이 있고, 5,000,000￥을 빌렸다고 한다. 5년 동안 5,000000￥을 갚기로 되어있고, 올해가 5년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빚을 갚은 것은 필요하다. 동경워커즈콜렉티브에서 운영할 수 있지만, NPO라서 부족한 출자금은 빌릴 수 있다.

2) 질의응답 내용 요약

Q: 동경워커즈콜렉티브에서는 출자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본 매장은 출자금을 내면서 운영하지는 않는가?

A : - NPO에서는 민간출자라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장인을 함께 일하는 것에도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다. 3년 이후에는 계속해도 되고, 옮길 수도 있다.

- 지원하는 시스템이 연간 ,1000엔인데, 10구자 가진 사람, 1구자 가진 사람이 다양하다. 회원도 있고, 찬조도 있는데, 1달에 운영하면 전체적인 회의를 운영한다. 전체 스텝회의를 통해서 개발 및 논의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 회원 중에, 3만¥(한화 450,000원) 30명, 1천¥(한화 15,000원) 70명, 근무는 21명이 하고 있다. 찬조하는 사람은 찬조만 하고, 스텝은 2% 할인하여 운영하고 있다. 크게 보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코스모스카페 전경사진



코스모스카페 내부사진



세미나 참가 모습



행가래팀 단체사진

◈ 동경워커즈 콜렉티브 협동조합 사무국

기관명	동경워커즈 콜렉티브 협동조합 사무국	방문일자	2012년 9월 19일
담당자명	아나기모토상	홈페이지	http:// www.tokyo-workers.jp
주소 및 연락처	동경도 신주쿠구 가부키쵸 2-19-13 ASK빌딩 5층		

1) 기관의 특성 및 사업내용

● 워커즈콜렉티브에서 하는 일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사업차원에서 운영 하고 있다. 고용되는 개념은 없고, NPO와는 다르지만, 매출을 첫 번째 목적으로 취하고 있다. 지역의 공헌차원에서, 사용자입장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고 왔을 것인데, 취지를 살리고 있다. 신체장애인, 정신·지적장애인, 사회적 압박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다. 생활클럽이라는 것에서 출발했는데, 여성의 지위가 약자였고, 여성의 입장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처음에는 빵이나, 도시락 사업단에서 시작했는데, 장래코디네이트 사업화 시켜 확장시키고 있다.
현재 동경에 50개의 단체가 있다. 개호보험에 관해서 고령자, 장애인에게 단체가 33개가 존재한다. 워커즈콜렉티브를 통해서 출자이후 노동에 들어오고, 경영이 이루어진다. 서로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나간다. 일본에서는 동경워커즈콜렉티브를 법인단체 허가를 받았는데, 법인전화 운동을 벌이고 있다. 법인의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노동자와 경영자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커뮤니티 및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하지만, 서로 워커즈 경험과 지식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시는 책자들은 사회적 약자와 양육책자,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책, 식사관계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다. 설립에 대한 내용과 잡지를 만들고 있다. 이상의 전체적인 흐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로 경영자입장에서 노동과 경영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질의응답 내용 요약

Q : 공동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애인등과 함께 운영하면, 공동출자의 비율을 어떻게 나누는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A : 한구자에 1만￥과 2만￥이 이루어지는데, 장애인과 차별은 없다고 한다. 동경워커즈는 인식적으로 장애인과 고용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다.

Q : 워커즈 콜렉티브의 종류는 무엇인가?

A :

- 다른지역 워커즈 콜렉티브 사업단과 비슷하다. 재가서비스가 보험료로 지급되지만, 건강하게 움직여주는 체육, 재활치료, 운동요법을 공부하고 있다.
- 장래코디네이터는 일반적인 이벤트성 장례식코디를 해주는 업무을 해주고 있다. 개별욕구에 맞는 장례식을 해주고 있다.
- 동물이 죽고나면, 화장처리를 해주는데, 반려동물에 대한 장례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Q : 워커즈는 비용을 지불하고 회원으로 등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출자금을 내지 않는 비회원들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

A : 일하는 사람이 회원이고, 지역주민이 이용하면 감사한 일이라고 한다. 회원들은 자원봉사의 개념은 아니고, 월급을 받고 있는 관계에 있다. 회원이 전부가 경영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게 남기고 있다.

Q : 워커즈에 출자이후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A :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나누어가진다. 하지만 거의 남지는 않는다.

Q : 시장경쟁사업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갔는가?

A : 워커즈 사업은 일반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시민사회를 성장시키는 3섹터라고 볼 수 있다.

Q : 한국사회에서는 기업에서 프랜차이즈화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지는 않는가?

A : 기업은 돈을 필요로 해서 이루어지지만, 워커즈 시장으로 기업이 들어오고 있지만, 워커즈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Q : 사용자 입장에서 가격을 정하는데, 시장경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되는가?

A : 시장에서 파는 도시락은 500￥인데, 500￥에 사용하는 도시락의 재료는 유전자 변형제품 및 방사능 식재료를 지양하고,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Q : 워커즈 콜렉티브의 향후방향들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A : 경기침체로 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지만, 본인이 필요로 하고 가치로만 운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공동조합이라는 움직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출산으로 상호협력체계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Q : 워커즈 콜렉티브의 출자금을 내고 운영하던 사람이 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타 회원을 모으고 있는지?
A : 오히려 이사를 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Q : 공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많은데, 무엇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가?
A : 식사서비스의 이용자가 가장 많고, 고령자에게 도시락제공을 하지 않아서, 워커즈에서 실시하고 있다.

Q : 비영리사회사업 (NPO)이라는 일본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가?
A : 보조금 지원은 없다. 법인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서 운동을 벌리고 있다.

Q : 공동조합 사무국과 사업단이 어떤 역할을 주고받고 있는가?
A : 상하부 단체의 개념은 없고, 개입을 할 수 없다. 자료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

Q : 사무국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A : 사업단에서 사무국을 필요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50개 단체에서 출자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Q : 담당자로서 워커즈 콜렉티브의 가장 큰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차세대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비가 저렴해서, 경영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경영과 책임을 가지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차세대 문제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을 해보면 출산 및 아동양육의 조절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 한계점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A : 열심히 일하면 너무 좋고, 편한 점이 있지만, 지역에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다 좋은 곳에서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지역에서 일하고자하는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점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Q : 가나가와현 워커즈 콜렉팀과 차이점은?
A : 가나가와현 워커즈 콜렉티브 및 가나가와현 생활협동조합에서 시작했지만, 110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역에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워커즈 콜렉티브 시스템 패턴이 모여서 한번 회의를 하고 있다. 별개로 운영되지만, 큰 체제의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동경워커즈콜렉티브 사무국	세미나 참가 모습
	
참가자 단체 사진	동경워커즈콜렉티브 사무국장 및 통역인

◈ 가나가와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기관명	가나가와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일자	2012년 9월 20일
담당자명	SUZUKI JIRO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1) 기관의 특성 및 사업내용

● 가나가와현 장애자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직원 4명이 나와 전체적인 센터 현황과 일본의 장애인복지제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다. 또한 우리나라에 대한 의견도 곁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워크숍이 진행되었다.

● 가나가와현 장애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뇌병변장애를 가진 수즈키 지로(SUZUKI JIRO) 사무국장이 모든 브리핑 및 질문에 응대를 해 주었으며, 최근 장애인복지 패러다임과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 주었다. 배리어 프리(Barrier-Free,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지하철의 스크린 도어에 대해 매우 부러워하였으며, 일본의 경우 전체 공용버스의 70%이상이 저상버스로 되어 있고, 다양한 시설물이 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만을 만들기 위한 선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등 실랄하게 일본의 상황을 말해주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2007년에 가입한 부분을 무척 부러워하면서 아직 일본은 이러한 국제 협약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타까워하면서 우리나라에 2008년부터 시행되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아직 일본사회에서는 없다며 우수적인 일본사회에 대해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였다.

● 의료적 모델로서 장애인복지가 실천되다가 사회적모델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일본의 장애인복지계도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보수성향이 자민당이 선거에서 패하고 진보 성향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다양한 장애인복지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일본의 장애인자립지원법은 장애인종합자립지원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데코레이션이 많아졌고, 다양한 장애인당사자 활동이 활성화 되었다.

● 가나가와현 장애자 자립생활지원센터도 이 당시인 15년 전에 설립이 되었고, 현재 일본에는 총 120개의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가나가와현에는 해당 센터와 함께 총 7개의 센터가 운영 중에 있으며, 모두 가나가와현 소속의 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운영을 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활동 보조인사업과 커피숍 운영을 겸하고 있다.(요코하마시 인구 900만명, 가나가와현 인구 300만명)

2) 질의응답 내용 요약

Q : 일본에서 현실적으로 탈시설화는 어떻게 정의하고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A : 그룹홈, 케어홈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생활시설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며, 이러한 시설이 현재 일본에 많이 존재한다.
Q : 그렇게 되면 어차피 또 다른 시설을 양성하는 것 아닌가?
A : 일본에서도 그것이 과제이다.
Q : 일본에서 배리어 프리 신법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A : 일본에서 배리어 프리 신법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민간에는 자율적인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만을 만들기 위한 요식행위로서의 법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다.
Q : 현재 일본에서의 배리어 프리 신법의 적용 사례에 대해 말해 달라
A : 붙특정다수 5천명 이상인 장소는 무조건 장애인편의시설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민간에서도 철도, 버스, 택시 등을 5%이상 의무로 해야 한다.

<table>
<tr><td>  </td><td>  </td></tr>
<tr><td>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워크숍</td><td>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교육</td></tr>
<tr><td colspan="2"> 
</td></tr>
<tr><td colspan="2">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단체사진</td></tr>
</table>

◈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장애인지역활동홈

기관명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장애인지역활동홈	방문일자	2012년 9월 21일
담당자명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요코하마시 코호쿠구 토리야마쵸 1752		

1) 기관의 특성 및 사업내용

● 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및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곳은 최초시기에 지역활동지원센터였다. 태어나 성장하면서 장애유무를 바로결정하기 힘든 부분을 가지고 있고,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이후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훈련시키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코하마는 성인으로 성장한 후 직업과 일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2회 모여서 장애인 재활치료를 실시하고, 교육을 주관하는 곳으로 알 수 있다.

● 요코하마시에는 1987년 부모의 자율적 훈련, 1988년 장애인지역활동 홈, 1998년 코스모스 공방을 운영하고 있다. 처음 NPO법인으로 시작하는 시기에는 120￥을 요코하마시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현재는 개호보험실시로 서비스 비용이 개호보험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 NPO 법인활동 단체로 벌어들이는 수익금의 50%는 영리활동, 50%는 비영리활동 수익사업이 가능하게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지역활동홈은 NPO법인, 지역활동, 장애아동가족의 운영위원, 조직운영 활동을 하고 있다.

● 장애인지역활동홈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1. 지적장애인 주간보호서비스 운영

2. 생활지원사업, 일시케어, 단기보호

(가족이 일시적으로 지역을 떠나게 되면, 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가족 여행 시에 이곳에서 보호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지역교류사업 (지역바자회 사업)

: 장애인 부모, 지역사회주민의 참여활동으로 바자회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는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 전에는 자율적인 수입창출로 활동홈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애인 케어 및 자립을 위해서 지역사회주민에게 개방하였고, 공방물건도 만들어 수익 판매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활동을 만들고 있다.

4. 주간보호서비스

: 작업공방을 다니지 않는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참여로, 장애인의 보호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에 23개 시설에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가 더 만들어져야 하다.

5. 활동과정

: 장애인, 직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지역주민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빈 깡통을 수집하여 판매하고 있다. 역할분담을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보다는 외부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작업 활동이후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임금에서 월 4,000￥(한화 월6만원)과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볼펜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하는데, 잘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 빈 깡통 수집을 통해 얻는 수입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작업장에서 하루 차액으로 동일하게 수익금을 나누는데, 능력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월 4000￥이 타 시설의 개별 차이에 나누어 지급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외부활동이 내부 활동보다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식당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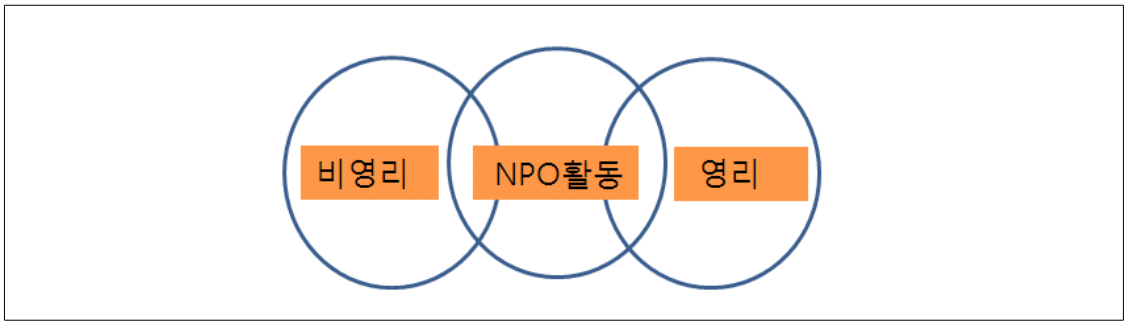
: 직원-자원봉사-이용자 하루 50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7. 코스모스 공방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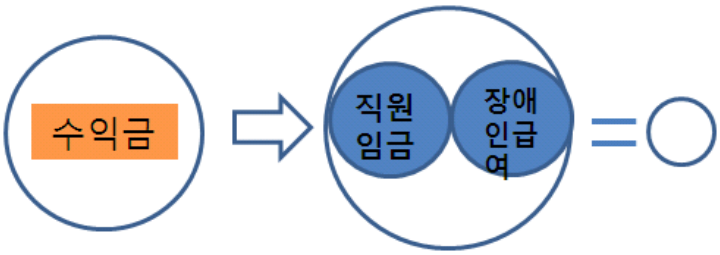
: 컵 받침대, T-shirt, 손수건, 두건, 수공예작품을 만들고 있다.

직업재활의 단계에서 코스모스 공방으로 이동한다. 본인이 희망하는 범위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할수 있는 만큼만 직업재활에 참여를 유도하는 작업이다. 코스모스공방에서도 4000￥을 지급하고, 보너스를 2회 지급한다. 수익이 많으면 여름에 10,000￥, 겨울에 12,000￥을 지급한다. 코스모스 공방의 시장판로가 없고, 구청시설에 바자회를 개최하여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주문판매 및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 **기관운영**



⇒ 보조금 + 수익금 (NPO 수익으로 운영)



● 향후 장래비젼은 “0”으로 계획을 세우지만, 현재는 적자노선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해결방안으로는

① 직원들의 급여 삭감 및 저인력교체

②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수익금 창출 규모 확대

③ 기부금 시스템

● 현재 본기관이 사회복지기관으로 가고 싶지만, 시설부대 및 자본금이 부족하여 사회복지 법인으로 가지 못하고, NPO법인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table>
<tr><td>  </td><td>  </td></tr>
<tr><td>참가자 교육과정</td><td>장애인활도홈 사무실</td></tr>
<tr><td>  </td><td>  </td></tr>
<tr><td>코스모스 공방 작업장</td><td>코스모스 공방 작업장</td></tr>
</table>

◈ 가와사키 와쿠와쿠플라자

기관명	가와사키 와쿠와쿠플라자	방문일자	2012년 9월 21일
담당자명	가와시키상	홈페이지	
주소 및 연락처	가와사키시 나까하라구 시타코다나까 1-4-1		

1) 기관의 특성 및 사업내용

● 와쿠와쿠플라자는 방과후에 이용하는 곳이고, 프로그램 종료 후 혼자 집에 가기도 하고, 부모님이 데리고 가기도 한다. 오토초등학교 특징은 장애아동 이용비율이 높고, 방과후교실 이용아동의 비율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공익재단 법인 와쿠와쿠시민활동센터가 업무를 맡고 있고, 문화센터 및 와쿠와쿠센터를 가와사키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나카와라 지역 운영을 맞은 사토상과 오토초등학교 문화센터 관장이신 가와시키상을 만났다. 와쿠와쿠프라자의 문화센터의 직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직접접촉하시는 안도상과 스텝활동 사케다상, 이시다상, 에스미상을 만났다.

● 주 3~4일만 근문하시고, 로테이션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스텝과 리더는 13명이라고 볼 수 있다. 하루에 5~6명의 스텝분들이 하루 70~80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다고 한다. 학교에 보호자 참관수업이 있으면 200명이 온다고 한다. 와쿠와쿠프라자느 원룸자체만 있다고 한다. 교정에서 놀기도 하지만, 주로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2) 질의응답 내용 요약

Q :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자격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A : 등록제로 되어있고, 부모와 아이가 등록만 하면된다. 육아지원이라는 프라자는 밤6시~ 7시까지 2500￥을 지급하고 있다.

Q : 등록에 제한이 있는지?
A: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낮에는 무료라고 한다.

Q :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할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가?
A : 모두 무료이다.

Q : 초등학교 이용률이 몇%인지,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시설 및 민간단체를 이용하고 있는가?

A : 오토초등학교는 900명정원, 등록인원은 450명, 저학년이용 많이하고, 고학력이 되면 이용을 잘 하지 않고, 학원에서 가서 사교육을 받는다. 부모님의 생각차원에서 움직인다.

Q : 맞벌이 아동들을 위한 돌봄의 수준인지, 치료의 수준이 개입되고 있는가?

A : 와쿠와쿠프라자는 놀이중심이라고 이해하면 되고, 의료행위 등 약물금지 , 생활속에서 노는 것, 형제자매가 없으니, 친구들과 어울리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한다. 혼자놀면, 재미없으면 같이 어울리고, 장애아동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Q : 일본의 초등학교 다수가 와쿠와쿠 프라자를 하고 있는가?

A : 학교 방과후에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다고 한다. 다른시에 가면 다른 행정을 사용하고 있다. 가와사키시는 학교내에서 돌봄이 역할을 하고 있다.

Q : 등록한 후에 무한정 이용할 수 있는가? 연간 시간이 정해져 있는가?

A : 1년단위로 신청하다.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있다. 등록카드인데, 1년마다 등록을 하고, 부모가 맞벌이 하면, 월~토요일까지 방문해야 하고, 정기용 혹은 자유용 카드가 있고, 카드가 없으면 여기로 들어올 수 없다. 부모님이 데리러 오는지, 아닌지 등을 카드에 체크하게 된다. 학교시간을 체크하여 보내면, 선생님이 확인 후에 귀가시간 및 동행여부를 결정한다. 정기이용자가 못올때는 반드시 전화를 해야 한다고 한다. 안 올 경우, 부모님의 사정인지를 연락을 통하여 와쿠와쿠프라자 이용을 이해하게 된다. 자유이용카드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Q :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A : 방과후 들어오면 6시까지 무료이고 7시까지 유료이다.

Q :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혹은 직원인지?

A : 공익공단들은 고용되어서 업무로 시급을 지급하고 있다. 지역분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시급을 받고 참여하고 있다.

Q : 스텝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A : 자격기준은 없다. 오시는 스텝분들은 보육사 자격증은 있지만, 일하는 스텝에 있어 필수적인 자격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 학습할 수 있는 사람의 차원에서 지역사회참여를 유도한다.

Q : 한국의 경우 악기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진행했으면 하느

프로그램은 없는지?

A : 저출산으로 집에 1명밖에 없으니, 이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모여서 갈등과 화해를 끌어가는데, 사회성을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 참여하면서, 인성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관계로, 예술문화활동을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Q :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 섞여서 이용하는 것인가?

A : 아동들과 안심하고 맡기고, 가와사키에는 아동 권리 조례가 있고, 어린이 의견을 들어주는 것을 듣고 참고해서 반영하고 있다.

Q : 와쿠와쿠프라자가 있는데, 지자체 후원을 받아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일본에는 학교방과 후 아니고 민간차원도 있는가?

A : 전체적인 아동양호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지자체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처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고 한다.

<table>
<tr><td>  </td><td> 
</td></tr>
<tr><td>와쿠와쿠프라자 사무실</td><td>일본아동가방 안전장치</td></tr>
<tr><td> 
</td><td> 
</td></tr>
<tr><td>와쿠와쿠프라자 게시판</td><td>와쿠와쿠프라자 게시판</td></tr>
</table>

Ⅴ. 연수주제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

1. 이론 및 학문적 배경

(1) 일본사회의 생활협동조합

여성들의 지역 노동시장 참여 한계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본의 생활협동조합 워커즈 콜렉티브를 소개할 수 있다. 생협(생활협동조합)활동은 일본사회 지역공동체의 변화, 글로벌리즘과 신자유주의의 확산. 3□11 대지진이후 격변하는 일본사회 속에서 대표적인 시민운동이면서 지역사회 변화를 끌어가는 중축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

일본은 가나가와 네트워크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축이 된 여성들이 생활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역사회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일본에서는 약 650여개의 생협이 있고, 그 조합원수가 2,200만명에 이른다. 일본의 전체인구가 1억 2,700만 내외라는 것을 감안하면, 약 17~18%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협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협(생활협동조합)은 일본사회를 공동체사회로 끌어가는 중요한 조직체이고, 그 생협활동을 이끌어오는 대표적인 사업이 워커즈 콜렉티브이다. 워커즈 콜렉티브는 한국생협활동 및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변형된 형태로 소개되고 있으며, 더 이상 한국사회에서도 생소한 개념은 아니다.

(2) 워커즈 콜렉티브 정의 및 배경과 가치

워커즈 콜렉티브(worker's collective)는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 모임, 협동체, 일종의 협동조합을 뜻한다.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출자하고 경영도 하고 일도 하는 사업체를 통틀어 워커즈 콜렉티브라고 부르는데, 자유로운 노동의 가치, 즉 고용인과 피고용인 관계를 넘어서 사업을 협동으로 기획하고 협동으로 노동하는 구조다.

워커즈 콜렉티브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다.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산업발전이 뒤떨어졌던 프랑스에서 공장의 기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공들이 자신들의 작업장을 만들어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시작이다. 워커즈 콜렉티브란 용어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2년 일본에서 최초의 워커즈 콜렉티브인 '닌진'이 설립되면서부터이다. 닌진은 생활클럽생협에서 설립돼 왕성하게 활동했으며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복지 워커즈 콜렉티브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복지 워커즈 콜렉티브는 도시락, 배달운송, 빵제조, 가사업무 위탁, 비누공장, 복지서비스, 리사이클사업 등으로 다양화 되었다.

현재 워커즈 콜렉티브는 지역 안에 산업사회의 노동방식을 새롭게 바꾸고자 여성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져 가고 있다. 효율과 이윤을 추구하는 남성중심 노동방식이었던 20세기 산업사회로 인해 많은 환경파괴와 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 이에 21세기에는 생활방식과 노동방식을 바꿔 생명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여성중심의 순환형 자립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목적을 가지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위해 출자하고 운영해가고 있다.

(3) 워커즈 콜렉티브 활동 및 한국 활동 사례

워커즈 콜렉티브는 새로운 일의 방식으로 임금노동과 무보수노동의 대립을 극복하는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고용되지 않고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일은 지역 스스로 해결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여성과 시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사업에서 생활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사회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비영리로 운영한다. 워커즈 콜렉티브의 노동방식은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민주적 방식으로, 여성과 시민의 사회참여 조건을 정비해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또 노인에게도 창출하고 젊은 층의 사고방식에 맞는 일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다.

서울 은평구 갈현동 문화카페 '마을'은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의 7명이 모여 만든 워커즈 콜렉티브다. 주민센터에서 어린이 마을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자원활동으로 시작해, 공동으로 출자하여 워커즈 콜렉티브 문화카페 '마을'을 연 것이다. 음식재료는 은평두레생협에서 구입하고 수익금의 10%는 학생들의 교복지원사업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는데 사용한다.

충북의 사회적 기업 (주) 생명사업 올리(ALL利)는 세계화된 식품인 햄버거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로컬푸드 운동으로 전개하면서 '식품안정, 지역성, 건강한 일자리'라는 사회적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워커즈 콜렉티브다. (주)생명살림 올리는 청주YWCA에서 시작한 '민들레 워커즈 콜렉티브'로 환경을 생각하는 주부들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아나바다가게를 거점으로 리폼의류, 친환경세제, 환경수세미, 대안생리대, 친환경 먹거리 등 생활밀착형 물품을 갖춰 나가며 사업규모를 만들어갔고, 현재는 콩비지를 이용한 올리버거를 만들어내며 사회적 신뢰를 탄탄하게 구축하고 있다. 처음 민들레 워커즈 콜렉티브는 5명의 여성들이 시작했지만, 지금은 여성가장, 이주여성 등 15명의 여성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식품안전 강사도 되고 요리사도 되고 활동가도 되면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게 노력 중이다.

(4) 워커즈 콜렉티브 일본의 사례

① 미찌 (도시락 워커즈 콜렉티브)

'고용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걷는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도시락 워커즈 '미찌'는 1984년에 만들어졌다. 초기 2~3년간 생협의 위탁업무로 활동하다 도시락 배달중심 매장 '락거암'으로 독립하였다.
미찌는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시락을 만들고 화학조미료를 넣지 않고 유기농산물을 재료로 도시락을 만들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으로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사립 중고등학교 식당 공사중인 곳에 도시락을 배달하고, 구청에서 위탁받아 지역사회 복지대상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② 오레가노 (노인대상 식당 워커즈)

오레가노는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갖고 형성된 워커즈이다. 오레가노 워커즈는 유로노인복지 시설 '생활과학 복지맨션'의 식당에서 경영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오레가노 워커즈는 특성상 초기에 5명의 회원이 출자금 없이 시작했고, 현재는 22명으로 구성원이 증가하였다. 구성원은 60대 이상이 3명이고 나머지는 50대 중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주일에 4-5일 정도 1인당 5명씩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다.

③ 휴우(장애인과 함께하는 찻집)

휴우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들이 주인이 되어 일하는 일터로 1995년 5월 9명의 멤버로 시작해 현재는 총22명의 멤버가 참여하고 있는 워커즈이다. 초기에 휴우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청소 등의 손쉬운 일들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다마시의 재개발 계획으로 세워진 사꾸라가오까라는 쇼핑몰 7층에 입찰공모를 통해 커피숍을 마련했다. 휴우는 다른 워커즈와 달리 구성원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특성으로 '천천히! 다함께!라는 슬로건아래 비록 수입은 얼마되지 않지만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것과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참여한다는 사실에 삶의 의미를 두고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일하고 있다.

④ 마르조룸(유기농 식당)

마르조룸은 1990년대 걸프전과 동서독일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도산국들에 대한 살

길 마련과 경제적인 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입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요코하마에 마르조룸 즉 제3세계 여성들이 만든 공예품 수입매장과 유기농식당을 겸한 워커즈를 1991년에 설립했다. 마르조룸은 초기에 4명으로 워커즈를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3명이 워커즈를 운영하고 있다. 마르노룸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여성들이 만든 공예품을 중심으로 공정한 가격으로 수입하고 판매하여 올린 수입금을 다시 해당 지역 여성들에게 환원하는 공정무역활동을 하고 있다.

2. 국가 간 비교분석

(1) 한국 노동연계복지(workfare) 사업 및 노동시장 진입의 한계

① 취약계층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현재 한국사회는 노동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청년실업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청년실업은 경력단절 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한다. 취약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의 한계는 잠재적 능력을 가진 인력이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한계가 있고,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적인 측면에서 국가적 손실로 볼 수 있다.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찾아보자.

첫째, 우리나라 전체 한부모가족은 147만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1,691만 가구)의 8.7%이며, 전체 한부모가구 중에서 실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17만가구로 약 11%에 그치고 있어, 한부모가족 10가구 중 1가구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09) 한부모여성가구주의 다수는 비정규직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자녀양육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 저학력 및 저기술로 창업을 시도하더라도 실패확률이 높고, 창업을 지속해 갈 수 있는 지지자원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어, 새로운 방식의 노동시장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성매매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다. 성매매 업소 생활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패턴이 일반노동시장 참여에 적응조차 하기 힘들고, 적응과정 시간이 오래 걸리며, 적응과정에 참여와 실패를 반복하는 동안 일자리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동시에 기초학력이 부족하여 노동시장의 진입은 더욱 어렵다.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려, 자활은 쉽지 않다고 본다.

셋째, 여성장애인들은 경우, 특정한 능력없이 , 노동시장 참여에도 한계가 많으며,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높고, 동료들이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거부감이 많아,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디어들은 요구되고 있다.

② 한국 노동연계복지(work fare)

전세계의 신자유주의 물결과 한국사회에서 IMF 구제금융의 위기를 마련하면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사회복지에 경제원리를 적용하여 생산성을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외환위기의 문제에 맞추어, 수혜적 복기급여를 공급하는 공공부조의 성격에서 벗어나,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을 통해서 조건부 수급권자를 발생시키고, 조건부 수급권자의 노동시장의 참여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지역자활센터에서는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교육, 인성변화 및 다양한 사업단을 창출을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지역자활센터의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한 정부의 기대치에 높은 성과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일부 학자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는 지역자활사업에 비판을 쏟기 시작하였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3년간의 정부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소외계층들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시점에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성과를 제시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현실이다. 청년실업률 8.5%를 달하면서,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업정책 및 고용노동부의 취업연계프로그램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학력 및 고기술의 가진 청년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여서들을 위한 새로운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개발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연계하는 실업자 및 재직자 취업프로그램 또한 고학력에 기본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일본 여성들의 워커즈콜렉티브 사업단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여성들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하는 발상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워커즈콜렉티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는 고학력 및 고소득 가정의 주부들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고소득 가정의 주부들은 지역사회 유기농 먹거리 및 필요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자금을 내고, 이윤창출의 목적보다는 지역사회 공익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사업단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사회서비스 이용대상으로 회원체계를 구축하고, 회원들은 서비스 이용에 따른 연회비 3만￥~1천￥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를 하는 회원들은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서비스 이용을 고정으로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회원중에 워커즈콜렉티브 사업단에 일을 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공동경영을 통하여, 거두들인 수익금을 급여를 받아가는 시스템이다.

고인력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해 급여는 낮지만, 참여자들의 욕구는 높은 급여보다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양질의 서비스를 저가로 이용할 수 있는데 큰 성과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현재 일본사회에서 도입된 개호보험제도를 2000년에 도입하였는데, 개호보험

제도 실시 전에는 워커즈콜렉티브 사업단을 통해서 「가사개호서비스, 식사서비스, 사설서비스(데이서비스· 입소형시설), 이동서비스, 보육서비스, 건강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본사업은 워커즈콜렉티브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개호보호실시 후 지원금을 받고 있어, 사업단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진입의 사회서비스 차이점

	일본	한국
노동시장진입의 사회서비스 형태	NPO법인, 생협을 통한 워커즈콜렉티브	지역자활센터, 사회적기업
참가자의 특성	고학력 및 고소득 가정	저소득 및 저기술
추구하는 이상	지역사회의 건강성,	개인의 자립· 자활
사업단운영	출자금 및 회원들의 연회비	정부보조금, 민간사업단형태전환
사회서비스 효과	서비스의 20~30년 지속성	2~3년 성과 후 지속여부 결정

Ⅵ. 결론 및 제언

1. 한국사회복지에서의 적용방안

일본해외연수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에 정책적, 실천적 적용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방안

① 일본의 워커즈콜렉티브 사업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 2012년 UN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였고, 한국사회에서는 12월이되면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현되어, 지역자활센터의 공동사업단 및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여, 사회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회재정부 인가로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는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 등 시장경제에서 소외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의 욕구를 가지고 있고, 해결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서, 협동조합기본법의 통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다.

● 저소득한부모여성, 탈성매매여성, 여성장애인은 시장경제 노동시장에 취업하기에 인적자본이 부족하고, 경쟁력이 어려워서, 인위적인 체계를 구성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펼칠 수 있는 방안은 시급하게 제공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자활센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정부의 공적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취업·자립지원이 미약하여, 실질적인 취업·자립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비정규직 및 일시적 노동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다수였다. 혹은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사회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자립방안으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및 보건복지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취창업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어려워다.

● 이들의 시장경제 노동시장에 진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민간영역에서 시도된, 노동자협동조합 “워커즈 콜렉티브”를 접하게 되었고, 기본적인 이론을 학습하기 위해,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하였다.
2차례의 워크숍과 일본해외연수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노동자협동조합인 “워커즈 콜렉티브”가 한국사회에서 노동시장 소외계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는 많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

들의 시장경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될 수 있고, 협동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서 민주적 운영방식을 배울 수 있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효과를 알게되어, 적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 일본이 워커즈 콜렉티브는 노동자협동조합이며, 일하는 공동체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일본에서 구성되어진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운동, 생활클럽협동조합운동은 상류층 여성들으 추측이되었고, 고학력 및 고소득을 가진 여성들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려는 움직이며, 국가차원의 사회가 아닌 민간차원의 변화를 시도하는 제 3sector영역의 움직임과 동시에 구성되었다.

일본사회는 2차세계대전이후, 자생되어 가는 과정에서 가나가와를 중심으로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생협에 회원들이 추측이 되어, 워커즈콜렉티브 사업단을 결성하게 되었고, 노동자협동조합임에 따라,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기본원칙을 고수하여, 운영과정을 이끌어 가고 있었다.

● 워커즈 콜렉티브란,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활자·시민의 관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영리·협동의 시민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구성원 전원이 출자하여 경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노동을 분담하는 일하는 자의 협동조합"으로, 그 참여자들은 "고용,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결정·자주관리에 입각한 주체적인 노동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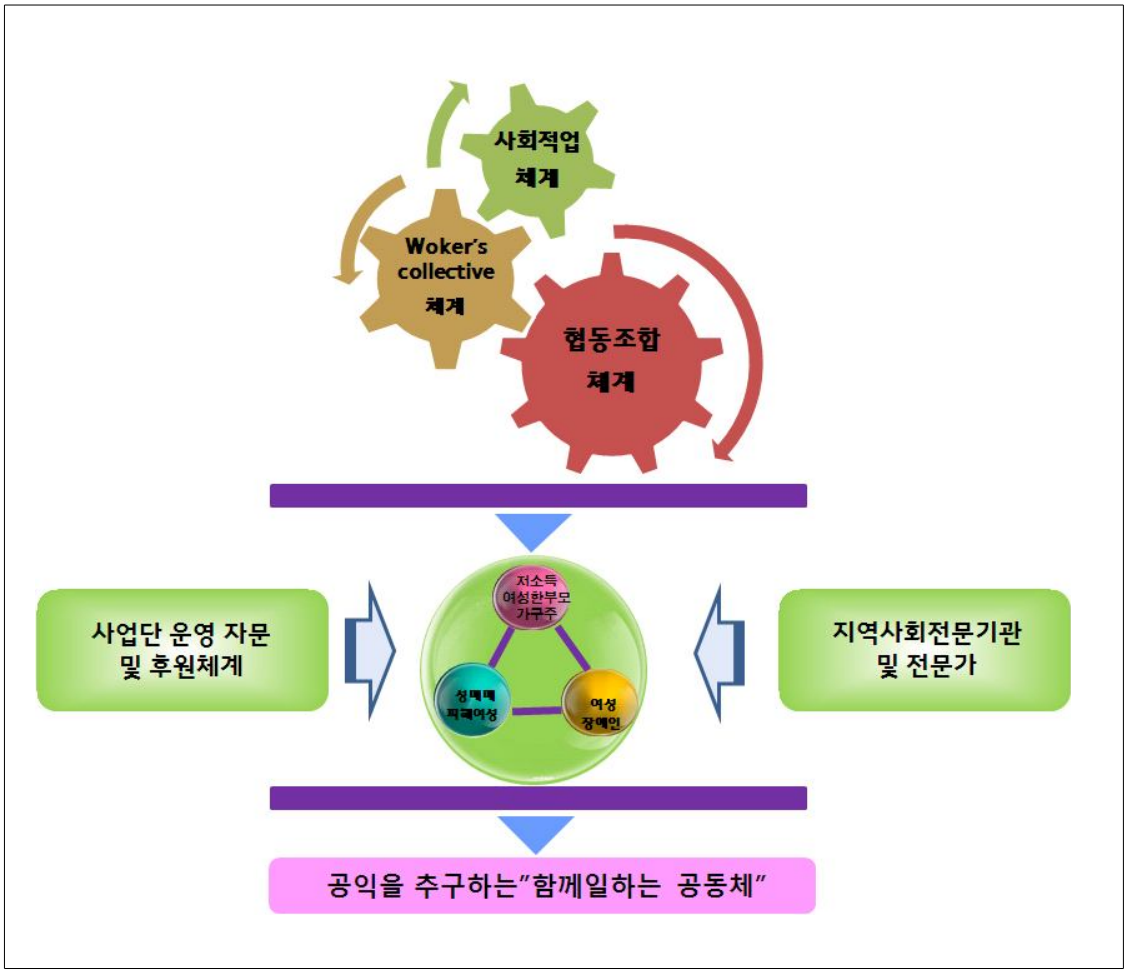
워커즈 콜렉티브 단체가 지향하는 것은, **첫째, 자주관리하는 노동방식은 자치하는 시민을 증가시킨다"**는 사고 아래 여러 가지 협동·계약관계에 근거한 노동방식을 통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 **둘째, 시장과는 다른 사용가치의 생산 및 교환영역으로서 커뮤니티워커(community)의 가치를 주목**하여, 이에 기초한 또 다른 가격을 형성함으로써 풍족한 마음으로 서로 일하고 돕는 새로운 노동방식을 확대하는 것, 셋째, 지금까지 주로 **여성이 담당해왔던 무상노동(unpaid work)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높여 젠더평등한 법령·제도이 실현**에 기여하는 것 등이라고 한다.

● 워커즈 콜렉티브 사업단의 원리가 한국사회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가능성적인 측면은 지향점의 3가지 측면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 사업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협동조합에서 추구하는 참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공동경영을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일수 있다. 민주적인 운영 및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성숙함이 부족한 대상자임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서, 구성원의 공동운영 성숙도를 높여야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사업단을 중심으로 시장경제에 상품이 아닌,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치와 공익성을 높이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의 개념으로 도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초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셋째, 여성들이 무상노동으로 당연시 되어왔던 “가사 및 돌봄”의 영역을 사업단의 구상과 발족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참여를 높이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여성들의 참여들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해외연수를 통해 학습하고 벤치마킹하게 된, 워커즈콜렉티브 사업단을 바로 한국현실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현재 세계경제체제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사회적경제체제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과, 한국사회에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12월에 발족되는 상황과, 다수의 지역사회자활센터의 사업단과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으로 변화하려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에 소외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체계는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에 한정된 사업으로 바라보는 힘들 것이고, 이 분야를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2) 실천적 방안

● 노동자협동조합을 구성한다.

저소득 한부모여성, 탈성매매여성, 여성장애인이 함께 노동자협동조합을 구성한다. 조합원들이 직접 공동출자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가짐에 따라, 노동자가 아닌 후원이 가능한 조합원들을 모집한다.

● 창업 가능한 아이템을 구상한다.

창업아이템	창업가능성	운영방법	비고
공씨네 주먹밥	- 현대인들은 바쁜일상으로 식사의 불균형 - 사회복지기관들 다수가 프로그램운영시 점심식사로 주먹밥에 대한 수요증가 - 사회적협동조합의 이미지를 부각하면 창업가능성 있음 - 소자본 및 인력구성으로만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	10인 이상의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	저소득한부모여성 여성장애인 탈성매매여성
샌드위치 및 조각케익점	- 여성노동자의 섬세한 성향을 이용하여 샌드위치, 조각케익, 커피 및 생과일쥬스가게 - 이용자가 많은 지역사회복지기관을 판매전략 장소 선정 - 소자본 및 저기술로 창업이 가능함	10인 이상의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	저소득 한부모 여성장애인 탈성매매여성
퀼트 및 비즈공방	- 장애인여성생산판매소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퀼트, 비즈공예등 기능을 습득시키고, 생산품을 판매용품으로 운영함 - 장애인복지관이 주측이 되어 운영하였는데, 여성장애인들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여성장애인들의 공방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을 연구함	10인 이상의 노동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	여성장애인

창업아이템	창업가능성	운영방법	비고
공동육아 협동조합	- 지역사회 돌봄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보완해줄 수 있기 목적으로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운영한다. - 육아돌봄을 통해, 여성의 사회진출의 기회보장 및 사회참여의 활성활를 가져올 수 있고,상업적 어린이집과 차별적인 육아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0인 이상의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	저소득 한부모여성 탈성매매 여성
도시락사업	- 도시락전문점 아이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유기농을 이용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컨셉의 개념을 가지고	10인 이상의 노동자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	저소득한부모여성

● 창업 사업단 회원들과 조합원들 모집한다.

창업 사업단에 참가할 의사를 가진 회원들을 모집하여, 공동경영 · 공동노동에 대한 이론적 교육을 실시한다. 참여자들 스스로 창업을 준비하고, 만들어 갈수 있는 체계를 형성한다. 동시에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운영자금을 확보한다.

● 창업단계를 실시한다.

창업아이템을 선정하고, 지역사회 상품성 및 상품의 지속성을 알아볼 수 있는 시장조사를 실시한다. 시장조사 이후 창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선정 및 준비과정을 거쳐 창업을 실시한다.

● 공동경영 및 운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나간다.

참여자들이 갈등없이 공동출자, 공동경영, 공동배당을 원칙으로, 일자리 창출 및 노동시장에 본인의 역할을 다져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Ⅶ. 연수소감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이선희



사회복지사들은 실무현장 근무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립, 자활을 시켜내어야 하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실무자가 모여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어떻게 하면 자립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다. 현재 정부차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기업에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였고, 2012년 12월 발족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두고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를 이 체계안에서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나를 힘들게 했었다.

2004년 오스트리아 해외연수 방문시에, 장애인의 취업을 위해, CEO는 제과점을 열었고, 제과점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근무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원은 지자체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어린 사회복지사시절에 감동을 받았으며, 얼마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수집 '레인보우"을 열었는데, 주식회사의 개념으로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클라이언트를 자립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많은 생각과 고민을 일본해외연수에 참가하여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 사업단을 알게 되었다. 연수이전에 2차례의 학습과 스터디를 준비하였고, 일본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는 기대를 안고 연수에 참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동경워커즈콜렉티브 협동조합 사무국과 운영하는 직영사업단 코스모스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고, 일본에서 민간영역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한국과 다른 NPO법인 설립이 가능한 일본사회와 NPO법인과 워커즈 콜렉티브가 접목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일본역시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3sector 하향사업임에 따라, 새로운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사회에 접목하여 우리의 현실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어야 할 것이다.

연수는 매널리즘에 빠진 우리에게 새로운 자극과 촉진제 역할을 해주었고,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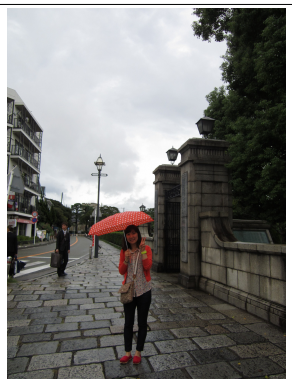
적으로 클라이언트 자립과 자활의 영역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는 2013년 사업계획

서에 연수의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수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가장 큰 성과점은 새로게 공부해야 할 꺼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실천은 정책흐름속에서 한 일부로 톱니바퀴의 동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셍계경제는 자본주이 시장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맥락속에서 존재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들은 지역사회를 자본시장이 아닌 인간중심의 사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일본의 “워커즈 콜렉티브”의 일본은 시민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자생된 노동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국가중심이 아닌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가는 동력이, 현재 한국에서 어떻게 가공되고 있는지? 그 영역에서 사호복지의 위치는 어느정도 인지? 직접적으로 만나는 클라이언트를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속에서 어떻게 자립과 연계시킬것인지? 등 나에게 많은 과제와 숙제가 던져졌다.

일본연수는 10년의 나의 사회복지사 삶에서 있어, 새로운 공부를 할 수 있는 전화점이 되었고, Turnning Point 지점이 되어서 나아갈 방향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공부의 영역과 그 공부를 통해서 현장의 업무를 이론속에 녹여낼 수 있는 일들로 새로운 나의 심장이 뛰고 있고 있다...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사 하민경



지역을 바꾸는 새로운 상상과 실천이 필요한 이때!!

한부모가장의 자립과 자활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나에게 찾아 온 해외연수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에 대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되었다.

해외연수를 앞두고 두 번의 스터디 모임을 가지면서 워커즈 콜렉티브에 대해 좀 더 다양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현지에서 어떤 부분들을 보고 듣고 배워와야 하는지 생각하게 했다.

일본에서 접한 워커즈 콜렉티브는 한국에서 공부했던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 우리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현지에서 워커즈 콜렉티브에 대해 듣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취약계층 여성의 특징에 맞는 워커즈 콜렉티브란 어떤 것일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리고 워커즈 콜렉티브의 모형보다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신념을 먼저 배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대부분 선진지의 좋은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 형태만을 가져오는데 급급해 그 안에 담겨진 정신을 함께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워커즈 콜렉티브를 접한 우리들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것들이 있고, 또한 예전부터 내려오던 두레, 품앗이와 같이 공동노동 형태를 가진 모델이 있으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았으면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만들고 운영하는 워커즈 콜렉티브와 유사한 공동체가 있고, 공동육아를 시작으로 지금은 마을 전체가 지역사회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를 가치있게 여기는 소통의 공동체가 되어 있는 성미산마을이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 여기에도 워커즈 콜렉티브와 성미산마을의 정신을 담아 취약계층의 여성들이 주최가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았으면 한다. 지자체와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취약계층의 여성들, 또 하나의 주체가 되는 지역주민! 이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취약계층의 자립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다.

고민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또 다른 영역에서 접근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 STX 측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해바라기 쉼자리
사회복지사 박정민



- 해외 연수를 가기전 우리 팀은 몇 차례의 회의와 워커스콜렉티브에 관하여 공부를 하였다. 하면서도 정말 이런 사업이 전국에 다 퍼져 있으면 자동 경제는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며 모두를 긍정적이었다. 또한 주변을 둘러보니 조그마하게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서 감탄의 연발을 하면서 기대에 부푼 해외연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협동조합의 틀은 비슷하였으나 직접 일을 하고 있는 현 일본사람들의 신념은 아직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높았다. 우리는 단지 경제를 살리고 우리 입소자들이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었다. 하지만 일본사람들은 잘 사는 것은 같은 목적이지만 잘 사는 기준이 우리와는 너무나 달르게 느껴졌다. 돈을 많이 벌어 잘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생활공간 등 우리와는 다르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었다. 일본의 모든 문화가 혹은 모든 생각이 다 배울점은 아니지만 조금 다른 생각의 차이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내 마음 가짐을 바꾸게 하였던거 같다. 지금도 그 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자격증이 꼭 필요한가요?', '이윤을 남길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해외연수에서는 마음을 배우고 온 것같아 마음이 따뜻하고 풍성했었던 거 같다.
이런 기회를 주신 STX관계자 및 경남사회복지협의회에 감사합니다.

창원시 마산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석혜진”



해외연수, 그 이상의 무엇-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준다는 어느 광고의 문구처럼...이번 해외연수는 지친일상에서 쉼이 필요했던 나에게 연수 그 이상을 느끼게 해 준 귀한 시간이였다.
이번연수는 기존의 쉼 형태의 연수와는 차별성을 둔 연수로 직접 찾아가고, 듣고, 보고, 배우는 실천현장중심 연수였다. 모든 연수의 준비과정부터가 주도면밀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생각된다. 그 바탕에는 주최측의 해외연수에 대한 새로운 발상, 협회담당자의 추진력, 참가자들의 열정이 있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을 말하고싶다.
연수라면 대개 큰 버스로 함께 이동하기 마련인데 우리는 현지 지하철과 도보를 이용해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즐거움도 함께 얻었다. 물론 가이드님과 함께 한 길찾기 였지만 도쿄 번화가에서 다양한 경험이 현지인들의 일상을 한발 들어와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에도 차이점과 국민성을 찾으려 노력해보며 연수 외 배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당연함이라 쉽게 지나쳤던 기본을 지키는 일, 신뢰의 바탕이 되는 타인과의 약속! 꼭 짜기라도 한 듯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잠시 놀라기도 했지만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작지만 강한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었다.
연수자체가 관련기관 라운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충분한 설명과 질의응답의 시간으로 이어지고 현지인들이 궁금해 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나눔의 장이 마련되어 심도깊은 시간이 되었다. 단순히 성과만 보는 것이 아닌 운영상의 한계점도 함께 나누고 그에 대한 대안도 고민해봄으로써 한국현장과의 연계성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 와중에 생각해볼만한 여러 가지 요소중 첫번째는 시설적인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그리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일본이 복지선진국으로 칭송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 복지현장과의 큰 차이라 할 수 있는 부분 즉,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경제논리를 접목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세 번째, 수요자중심의 서비스 방향이라 할 수 있었다.
한국의 사회복지현장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지 않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

성의 폭이 좁을 수 있는데 반해 일본은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서비스 질적수준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 또한 복지시설이 지역사회 안에 녹아들 수 있었던 점 역시 보편적서비스의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아직도 시설의 특수성만을 바라보고 지역 님비현상에 치우치는 한국의 현실과의 괴리에서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로서는 부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다. 갈수록 대규모로 확장시켜 나가는 한국의 시설형태와도 차이를 보였다.
네 번째는 직원들의 마인드였다. 한국사람들은 하고 있는 일의 영역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의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요구당하고 있다. 아무리 높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일에 있어 즐기고 진정한 가치를 찾은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음은 진리이다.
몇차례의 기관을 방문하여 똑같은 질문을 하였지만 치료영역의 전문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종에서는 전문적인 자격보다는 그 일에 있어 열심히 하고 남다른 자세를 가진 사람을 높이평가하고 채용한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과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가 행해질까하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충분히 이해와 공감은 되었다.
마지막으로는 복지기관에 부채가 많다는 것이다. 대부분 대출을 받아 시설의 기능보강을 하는데 쓰이는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복지기관의 부채는 한국실정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데 반해 현지 기관의 직원은 유연하게 생각했다. 부채의 부담에 있어 국가(지자체)가 50%를 변제 해주는데 이는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감이 일개 기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접근으로 볼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한국의 상황과 다른 차이점이 많았는데 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한국과는 매우 차이가 있었다. 수요자 중심의 시각이 서비스 질적향상을 가져옴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나라에 살고 있는 행복한 이용자들임에 틀림없다.
이번 연수가 당장 사회복지현장의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는 더디겠지만 기관방문을 통해 만났던 당사자, 직원들의 이야기속에 담긴 가치를 읽고, 사회복지의 첫발을 내 딛었던 초심은 되새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개인적으로는 공부, 쉼과 회복의 연수이자, 사회복지라는 공동체속에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종사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에 기회를 주신 stx복지재단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